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3. No. 2, 2002

## 꿈의 임상적 응용에 대한 고찰

구병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 Study of dream on clinical application

Byung-Soo Koo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Seoul, Korea

Dreams are experiences of life that is recognized to have taken place in the mind while asleep. The phenomenon of dreams is occurred by external stimuli such as somatic factor and emotion-arousing pre-sleep stimuli. The contents of dreams reflect the dreamer's unique psychic situation, we can view them from category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陰陽五行). Also dreams are characterized by an objectivity that provides whatever in necessary for psychic balance, regardless of the ego's wishes. Hence dreams are objective sources of psychotherapy. The doctor must not treat patient by the doctor's subject mind.

The Orient has taken the idea that human beings have the divine center in the heart, so dreams in the psychotherapy of the oriental medicine are more valuable as representation of inner world. The images of dream are classified as the deficiency and excessiveness of Yin-Ki and Yang-Ki of the internal organs, an property and source of stimulus.

Dream applies to diagnose the disease of internal organs and to decide to the method of medical treatment.

**Key Words** : Dreams, Yin-Ki, Yang-Ki, Five Elements, psychotherapy

### I. 緒 論

꿈에 대하여 기록된 韓醫書는 內經 중 《素問·方盛衰論, 脈要精微論》 《靈樞·淫邪發夢篇》 에

서 최초로 나타나며, 그 이후의 의서에서는 《內經》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고 더 이상 꿈에 대한 진척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꿈을 단순히 미신으로 생각하여 의학에서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東醫寶鑑》에 와서야 《內景篇 卷之二·夢》에 夢을 세부 목차로 둔 것은, 《內經》 이후의 의서에서 최초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꿈과 수면의 기전 및 질병

· 교신저자 : 구병수,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37-21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02-3416-9734, FAX 02-3416-9734, E-mail:gubs@hitel.net)

\* 본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을 포함하여 약물과 예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1900년에 프로이트(1856-1936)는 《꿈의 해석》<sup>1)</sup>을 출판하여 “꿈이야말로 말로 인간 무의식으로 통하는 대로”라고 말하였고, 정신분석이나 역동정신의 학에서는 꿈의 이해와 해석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진단하여 치료하는 과정에 八綱辨症·六經辨症·衛氣營血辨症·臟腑辨症·三焦辨症이나 四診을 통하여 병을 발생시킨 원인이나 위치를 찾아내어 치법을 설정하고 약물이나 침으로 치료하였다. 그러나 정신적인 내면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觀形察色만으로도 인체의 미세한 변화를 유추할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복잡하고 단절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내면을 알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대 의서에 사용되었으나 현재 한의학에서 임상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는 以道療法이나 移精變氣論등을 동양의 정서나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재정립하여 오늘날 임상에 활용할 수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제는 변증논치에 국한하지 말고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인간의 내면을 아는 한 방법인 꿈을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동양적인 문헌 醫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 II . 本 論

### 1. 동양고전에 나타난 꿈

《莊子·齊物論》<sup>2)</sup>을 보면 “其寐也魂交, 其覺也形開”라 하여 잠을 자는 상태는 靈魂이 交遊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形體가 열려있는 것이라 했다. 여기에서 形體가 열려있다는 것은 육체의 감각기관들이 외부 세계에 개방되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한다. 齊物論 마지막에 “어느날 장주는 꿈에 나비가 되었다. 펄펄 나는 것이 확실히 나비였다. 스스로 유쾌하여 자기가 장주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조금 뒤에 문

득 깨어보니 자기는 틀림없이 장주였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인가?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었인가? 그러나 장주는 장주요, 나비는 나비로서 반드시 분간이 있을 것이니, 이를 일러 만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列子·周穆王篇》에 꿈을 여섯가지로 분류하여 꿈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심리적 요소가 깊이 개입됨을 말하였다. “꿈의 6가지 조짐은 正夢(정상적인 꿈), 噩夢(놀라서 꾸는 꿈), 思夢(생각으로 인한 꿈), 寤夢(깨어있을 때의 말로 인한 꿈), 喜夢(기쁨으로 인한 꿈), 懼夢(공포로 인한 꿈)이다. 이러한 6가지는 우리의 정신이 꿈속에서 사물과 만나는 일들이다(此六者 神所交也)”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록한 부분은 정신을 치료하는데, 왜 꿈이 필요한것인가를 말한 부분이다. “不識感變之所起者 事至則惑其所由然 識感變之所起者 事至則知其所由然 知其所由然 則無所怛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알고 있지못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당황하게 마련이나,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일을 당해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허둥되지 않아도 된다. 사물이 그렇게 되는 원인을 알면 아무것도 두려워 할것이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임상적으로 이유없이 두려워하거나 심신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알게 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列子》의 꿈 내용은 內經에 이미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부분은 “藉帶而寢則夢蛇 飛鳥銜髮則夢飛 將陰夢火 將疾夢食 飲酒者憂 歌舞者哭 띠를 깔고 자면 뱀꿈을 꾸고, 나는 새가 머리를 물면 날아 다니는 꿈을 꾸다. 날이 흐리려 할 때는 불을 꿈꾸고, 병들려 할 때는 먹는 꿈을 꾸다. 술을 먹는 꿈을 꾸면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경우에는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꿈의 내용은 ‘感變’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 인하여 夢象을 꾸고, 夢象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반대적이거나 보상적인 면이 있다. 列子(기원전 400년경)는 꿈에 대해서 “古人真人 其覺自忘 其寢不夢 幾虛語哉”라 하여 이상적인 인간상인 眞人の 경우는 깨어있을 때 자기를 망각하고 잘때는 꿈꾸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sup>.

北宋시대의 張載(1020-1077)는 《張子正蒙·動

物篇》<sup>4)</sup>에서 “寤，形開而志交諸外也；夢，形閉而氣專乎內也。醫謂饑夢取，飽夢與，凡寤夢所感，專語氣于五臟之變，容有取焉爾”라 하여 莊子의 관점을 심화시켰다. 王夫之가 《張子正蒙》을 注한 것을 보면 “志交諸外而氣舒，氣專于內而志隱，則神亦藏而不靈，神隨志而動止者也”라 하였는데, 사람이 꿈을 꿀 때는 보고 듣는 계통이 닫힐 뿐만 아니라 인지기관의 이성적 활동도 정지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張載는 ‘氣專乎內’라고 부르고 있다. 形閉와 形開의 분별은 현대의 신경생리학에서 말하는 흥분과 억제의 두가지 상태에 상당하는 것이라 했다. 중국의 철학자와 의학가는 인체의 정신활동이란 바로 五臟에 감추어진 精氣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줄곧 인식해 왔다<sup>5)</sup>.

불교에서도 五臟의 병을 알기 위해서 꿈을 사용한 경우가 있으니, “若五臟病 隱密難知 坐禪及夢占之 若禪及夢多見 青色青人獸師子虎狼而生怖畏 則是肝病 若禪及夢多見 赤色火起 赤人獸赤刀仗 赤少男女親附抱持 或久母兄弟等 生喜生畏者 卽是心病 下去例隨色驗之 오장 병이 은밀하여 알기 어렵다면 좌선 및 꿈으로 이것을 살펴본다. 만일 좌선 및 꿈에서 대개 청색·청색의 사람·짐승·사자·범·이리를 보고서 또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일으켰다면 바로 이것이 肝臟의 병이다. 만일 선정 및 꿈에서 대개 붉은 색의 불길어 일어난 것이니 붉은사람·짐승·붉은칼·무기·붉은 어린 남녀가 친밀하게 붙어서 포옹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부모·형제 등을 보고 기쁨을 날거나 두려움을 낳는다면 이것은 바로 心臟의 병이다. 이 이하의 것은 전례를 본 떠서 색에 따라 이것을 살펴라”하였다<sup>6)</sup>.

## 2. 《內經》에서 본 꿈

《素問·脈要精微論》<sup>7)</sup>에서는 “陰氣가 盛하면 큰 물을 건너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꿈을 꾸고, 陽氣가 盛하면 큰 불이 나는 꿈을 꾸며, 陰陽이 다 盛하면 서로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꾀다. 上焦가 盛하면 날아 다니는 꿈을 꾸고, 下焦가 盛하면 떨어지는 꿈을 꾸고, 배가 부르는 꿈을 꾸면 남에게 주는 꿈을 꾸고, 몹시 배고프면 무엇을 취하는 꿈을 꾸며, 肝氣가 盛하면 화를 내는 꿈

을 꾸고, 肺氣가 盛하면 우는 꿈을 꾸고, 短蟲이 많으면 군중들이 모이는 꿈을 꾸고, 長蟲이 많으면 서로 싸워 다치는 꿈을 꾀다”고 하였고, 주로 脈을 보는 부위나 방법 또는 脈象主病에 대하여 주로 언급하여 진단에 대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이 편에서 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꿈을 진단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盛이나 實의 관점에서 보고있다는 것이다.

馬蒔는 五臟이 陰인데 陰의 邪氣로, 六腑는 陽의 邪氣로 보았는데, 肝과 肺에 속하는 情志의 이상으로 夢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人身의 음양이 천지만물의 음양과 합하고, 꿈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 張志聰은 천지의 음양오행은 사람의 음양장부와 합하고, 夢을 魂魄神氣가 유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肝과 肺의 장기에 대해서 馬蒔는 정지의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張志聰은 魂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心主火(陽) 腎主水(陰)이라는 개념으로 夢水·火夢·夢予·夢取를 설명하고 있다<sup>8)</sup>.

여기에서는 陰·陽, 水·火, 上·下, 盛·衰로 상반되는 의미나 夢象으로 대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꿈과 반대를 취하여 보상을 가지며, 한의학에서 중요한 기본사고 중 하나인 ‘인간은 소우주’라는 것을 꿈에 적용하고 있다.

《素問·方盛衰論》<sup>7)</sup>에서는 “氣가 부족하여 厥逆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망령된 꿈을 꾸게하고, 厥逆이 極에 달하면 혼미하여 진다. 三陽脈이 끊어지려고 하고, 三陰脈이 미약한 것은 氣가 부족한 것입니다. 肺氣가 虛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꿈에 흰색 물건이 보이거나 사람이 배임을 당해 유혈이 낭자하게 보이는데, 金氣가 왕성한 때를 만나면 꿈에 전쟁을하는 것이 보입니다. 腎氣가 虛하면 사람으로하여금 꿈에 배와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이 보이는데, 水氣가 왕성한 때를 만나면 물 속에 잠수하여 마치 두려움이 있는 듯한 꿈을 꾸게 됩니다. 肝氣가 虛하면 꿈에 초목이 보이고 木氣가 왕성한 때를 만나면 나무 아래에 엎드려 감히 일어나지 못하는 꿈을 꾀니다. 心氣가 虛하면 火을 구하는 것이 버락치는 꿈을 꾸며, 火氣가 왕성한 때를 만나면 큰 불길이 타 오르는 꿈을 꾀니다. 脾氣가 虛하면 음식이 부족한 꿈을 꾸며, 土氣가 왕성한 때를 만나면 담을 쌓고 지

붕을 엮는 꿈을 꾸다”고 하였다.

王水은 氣가 적어서 厥逆하면 사람들이 망령된 꿈을 꾸고, 厥氣가 盛極하면 혼란스러운 꿈을 꾸게 된다고 하였다. 꿈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白은 金의 색을 상징하고, 斬은 金의 사용하는 바라고 하였다. 秋3월 즉 金氣가 강하는 경우에 金은 兵革이고 兵戰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 배에서 사람이 빠지는 것은 水의 用하는 바이다. 腎은 水를 상징하고 고로 꿈에 水가 나타나는 것이다. 菌香生草는 草木에 속하고, 肝은 초목에 습하여 꿈에 나타난다. 꿈속에서 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으면 春3월을 말하는 것이다. 心은 火에 속하니 꿈에 火를 구하는 것이 나타난다. 築垣蓋屋은 土가 사용하는 바이다<sup>8)</sup>.

《靈樞·淫邪發夢篇》<sup>9)</sup>에서는 “正邪가 외부로부터 체내에 침입하면 일정한 부위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장에 침입을 하는데, 일정한 거처를 얻지 못한 즉 營氣와 衛氣가 함께 흐르거나 魂魄과 함께 날아다니니 사람들로 하여금 잠을 잘 때 편안하고 기쁜 꿈을 꿀 수 없게 한다. 陰氣가 盛하면 큰물을 건너므로 인해 두려워하는 꿈을 꾸고, 陽氣가 盛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을 꾸며, 음양이 모두 盛하면 서로 죽이는 꿈을 꾸는다. 邪氣가 上焦에서 盛하면 날아오르는 꿈을 꾸며, 下焦에서 盛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꾸는다. 심하게 굶주리면 음식을 얻는 꿈을 꾸고, 배가 부르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꿈을 꾸는다. 肝氣가 盛하면 분노하는 꿈을 꾸고, 肺氣가 盛하면 두려워하거나 우는 꿈을 꾸며, 心氣가 盛하면 자주 웃는 꿈을 꾸고, 脾氣가 盛하면 노래를 부르는 꿈이나 몸이 무거워 움직이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된다. 또한 腎氣가 盛하면 허리뼈가 분리되어 떨어지는 꿈을 꾸다. 이들 12가지 邪氣가 왕성한 경우는 邪氣가 있는 부위를 파악하여 瀉하면 바로 치료된다”고 하였다.

淫邪發夢篇의 편명에 대하여 馬蒔는 淫邪가 침습하여 12臟腑가 盛함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營은 陰氣이고, 衛氣은 陽氣인데, 둘다 같이 魂魄과 같이 飛揚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營氣(陰氣)가 盛하면 꿈에 나타나는 것은 陰인 大水가 나타나는 것이다. 衛氣(陽氣)가 盛하

면 꿈에 나타나는 것은 陽인 大火가 나타나는 것이다. 內外가 유여하면 음양이 相爭하여 꿈에는 서로 죽이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手部는 陽에 속하고, 足部는 陰에 속하여, 상부와 하부에 邪氣의 盛에 따라 飛揚·墮墜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肝의 志는 怒로 나타나고, 肺의 聲은 哭이므로 우는 꿈을 꾸게 되고, 心의 聲은 笑이고 心의 志는 憂로 나타나는 것이다. 脾의 聲은 歌로 나타나고 脾의 體는 肉이다. 腰는 腎의 腑이다. 위의 12가지가 盛한 경우에, 腑에 있으면 외부에 有餘함이 있고, 臟에 있으면 안으로 有餘함이 있어, 꿈을 꾸게 되면 邪氣가 어떠한 臟腑에 있는지 알아서, 針으로 瀉하면 邪氣가 바로 치료되는 것이다. 腑夢이면 腑를 瀉하고, 臟夢이면 臟를 瀉하라고 하였다. 張志聰은 正邪는 風雨寒暑의 天의 正氣라 말하였고, 陰氣盛과 陽氣盛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꿈을 心腎의 有餘이고, 陰陽俱盛한 경우의 꿈은 心氣并于肺와 腎氣并于肝으로 인하여 꿈에 서로 죽이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는 肝肺가 有餘함이다. 上盛과 下盛으로 인한 꿈을 꾸는 것은 魂魄이 上下로 有餘하여서 된 것이다. 飢飽로 인한 꿈은 脾胃의 有餘와 不足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꿈들은 邪氣와 五臟의 神氣遊行으로 形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sup>8)</sup>.

《靈樞·淫邪發夢篇》에서는 “厥氣가 心에 침입하면 산이나 언덕에 불이 나는 꿈을 꾸고, 肺에 침입하면 날아오르거나 금속류의 괴상한 물체가 보이는 꿈을 꾸며, 肝에 침입하면 산림과 樹木이 보이며, 脾에 침입하면 꿈에서 구렁이나 큰 연못이나 비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腎에 침입하면 깊은 연못에 이르거나 물에 빠지는 꿈을 꾸며, 膀胱에 침입하면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는 꿈을 꾸며, 胃에 침입하면 음식이 꿈에 보이고, 大腸에 침입하면 꿈에 들판이 보이고, 小腸에 침입하면 꿈에 사람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가 보이고, 膽에 침입하면 타인과 訟事를 벌이거나 배를 갈라 자결하는 꿈을 꾸고, 陰器에 침입하면 性交하는 꿈을 꾸고, 項部에 침입하면 목이 잘리는 꿈을 꾸며, 정강이에 침입하면 걸으려 하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깊은 땅굴에 사는 꿈을 꾸고, 대퇴부에 침입하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며, 요도와 直腸에 침입하면 꿈에 소변이나 대

변보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15가지 正氣가 부족하여 야기되는 질병들을 邪氣가 소재하는 부위를 파악하여 補하면 바로 치료가 된다<sup>9)</sup>고 하였다.

馬痔는 臟腑內傷으로 邪氣가 心에 客한 경우는 나타나는 꿈의 내용은 心屬火로 불이 꿈에 보이고, 다른 臟器 역시 肺屬金, 肝屬木, 脾屬土, 腎屬水의 오행관점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膀胱에 邪氣가 客한 경우는 膀胱經이 頭項背腰胛足으로 두루 돌아 다니는 것을 의미하여 꿈에 두루 돌아 다니는 꿈을 꾸게되는 것이다. 이외에 胃主納食, 大腸은 傳道之官으로 曲折하고 廣大하여 田이나 野와 비슷한 것으로 보았고, 小腸은 受盛之官으로 物을 취합하는 것이 畚과 비슷하고, 膽은 木에 속하고, 脾는 土와 肉을 主하고 木은 土를 克하니(木克土) 肉을 傷하는 것이다. 陰器를 作强之官이라 하였고, 項은 邪氣가 傷하는 부위이고, 이외의 부위는 역시 邪氣가 상하는 부위를 말하는 것이다<sup>8)</sup>.

《靈樞·淫邪發夢篇》에서 正邪의 침입으로 12가지의 邪氣가 盛한 경우에 邪氣가 있는 부위를 꿈을 통하여 파악하고, 15가지의 正氣不足으로 야기된 병은 邪氣가 존재하는 위치를 꿈을 통하여 알아내어 補와 瀉를 결정하는 진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王叔和脈經》<sup>10)</sup>에 나타난 꿈.

《王叔和脈經》 6권에 나타나는 꿈에 관한 내용은 《素問·方盛衰論》《靈樞·淫邪發夢篇》《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오는 부분과 간혹 오차는 나타나지만 일치한다. 脈經에 꿈에 대한 기록은 진단에 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4. 《千金要方》<sup>11)</sup>에 나타난 꿈.

《千金要方·肝臟脈論 第一》에서는 肝氣의 虛實에 따라 꿈의 내용은 모두 內經의 인용문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기타 다른 五臟은《素問·方盛衰論》《靈樞·淫邪發夢篇》을, 六腑는《靈樞·淫邪發夢篇》을 인용하고 있다.《素問·脈要精微論》에는 肝과 肺에 대한 꿈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千金요방에는 인용을 하지 않았다.

5. 《諸病源候論》<sup>12)</sup>에 나타난 꿈

《諸病源候論·卷四 虛勞喜夢候》에서는《靈樞·淫邪發夢篇》을 그대로 인용하고, 마지막에“尋其茲夢 以設法治 則病無所逃矣”라는 문구는 巢元方 자신의 말로 꿈을 상세히 탐구하여 治法에 사용하면 병을 잘 치료할수 있다는 의미로, 꿈을 치료에 활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鍼灸甲乙經》<sup>13)</sup>에 나타난 꿈

《正邪襲內生夢大論 第八》에 《靈樞·淫邪發夢篇》을 인용하고 있다.

7. 《儒門事親》<sup>14)</sup>에 나타난 꿈

“一婦年三十四歲 夜夢與鬼神交 驚怕異常 及見神堂陰府 舟楫橋梁 如此一十五年 竟無娠孕 巫祈覲禱 無所不至. 鑽肌灸肉 孔穴萬千. 黃瘦發熱引飲 中滿足腫 委命于天. 一日 苦請戴人. 戴人曰: 陽火盛於上 陰火盛於下. 鬼神者 陰之靈; 神堂者 陰之所; 舟楫、橋梁 水之用. 兩手寸脈皆沈而伏 知胸中有痰實也. 부인이 나이가 34살인데 밤에 꿈속에서 귀신과 교접하여 놀라고 두렵고 이상하였는데, 신당 배와 다리가 꿈에 보인지 15년이나 되었는데, 결국에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무당에게 굿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땀을 아주 많이 쏟아 땀 자국이 많았다. 누렁고 야위어 갔으며, 열이 나서 물을 마시고 배가 더부룩하며, 다리가 부어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있었다. 하루는 고생스럽게 戴人을 청하였다. 戴人이 陽火가 위에서 實하고, 陰火는 아래에서 實하다고 하였다. 귀신이란 陰의 靈이고 신당이란 것은 陰의 장소로, 배와 다리는 물의 쓰임이다. 양손의 寸脈이 모두 沈하고 伏하니, 가슴에 痰이 實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張子和는 꿈에 대하여 음양학적 분석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꿈에 나타나는 夢象을 음양학적으로 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脈으로 결정하였다. 이는《內經》에서 나타내고 있는 꿈에 대한 설명보다는 한차원 높게 꿈을 진단에 응용하고 있다. 본 의안은《東醫寶鑑》夢에서 재차 인용을 하고 있다.

8. 《醫學入門》<sup>15)</sup>에 나타난 꿈

臟腑條分の 心에 대한 注을 보면, “心實則夢可憂可驚可怪之事 虛則魂夢飛揚 氣逆於心則夢丘山煙火 健忘失記 驚悸不安 心內懊懣不樂 皆心血少也”라 되어 있는데, 心實과 心虛에 대한 설명이 《內經》에 나타난 문구와는 전혀 다르고, 夢丘山煙火은 《靈樞·淫邪發夢篇》에 있는 것으로, 厥氣客于心은 氣逆於心으로 표현하고 인체의 질병증상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臟腑條分 肺에 대한 注에 보면, “凡人之夢寐皆魂魄 合而成者也 肺熱則夢美女相依 或兵戈相競 虛則夢涉水田”이라 하였는데, 夢涉水田은 《素問·脈要精微論》의 陰盛에 夢涉大水와 같은 것으로 볼수가 있다. 《素問·方盛衰論》에서 肺氣虛하면 金氣가 왕성할 때 兵戈이 夢象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肺熱로 기록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오자인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韓<sup>16)</sup>은 女亦屬金하니 火克金故也(肺熱邪 곧 客邪)라 해석하였다.

꿈을 꾸는 기전을 魂魄이 습하여 잠을 자고 肺의 虛實에 대한 꿈 역시 《內經》과는 다른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9. 《類經》<sup>17)</sup>에 나타난 꿈

類經 18권 질병류 夢寐에서는 《靈樞·淫邪發夢篇》을 설명하고 있는데, “正邪는 외부로는 陰陽·勞逸로 感하고, 안으로는 聲色嗜慾에 動하여 나타나고, 또한 외부에서 안으로 침입하는 것이다. 變態는 황홀하고 일정하게 머무르는 바가 없어서, 고로 안으로 五臟에 침습하여 營衛와 魂魄이 亂하여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陰이 陽을 이기면 꿈에는 陰象이 많이 나타나고, 陽이 陰을 이기면 꿈에는 陽象이 많이 나타난다. 上盛은 陽勝하여 上과 親하고, 下盛은 陰勝하여 下와 親하게 된다고 하였다. 飢와 飽는 부족과 有餘로 설명하고, 肝氣盛과 肺氣盛은 志의 관점에서 각각 怒와 憂로, 心氣盛은 志는 喜인데 變動이 되면 憂가 된다고 하였다. 脾氣盛은 음악을 좋아하고 聲은 歌이고 肌肉을 主하며, 腎氣盛은 腰는 腎의 府이니 허리와 척추가 서로 연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陽氣가 盛하면 腑가 有餘하고, 陰氣가 盛하면 臟이 有餘한바, 邪氣가 있는 위치를

잘 살펴서, 針으로 瀉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 역시 邪氣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를 알아서, 침으로 치료하기 위한 진단의 한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였다.

周禮의 六夢을 인용하여 正夢(無所感而自夢也)·噩夢(有所驚愕而夢也)·思夢(因于思憶而夢也)·寤夢(因覺時所爲而夢也)·喜夢(因所喜好而夢也)·懼夢(因于恐畏而夢也)라 하였고, 關尹子の 말을 인용하여 好仁(多夢松柏桃李)·好義(多夢金刀兵鐵)·好禮(多夢簞簋籩豆)·好智(多夢江湖川澤)·好信(多夢山岳原野)로 구분하여 유학적인 용어인 五常으로 구분하여 꿈을 기록하였다. 이는 五行으로 구분을 한 것이며, 이를 꿈을 꾸는 원인이라 하였다. 오행의 변화 그 자체는 무궁한데, 꿈은 心에서 만들어지는데(夢造于心) 이는 모두 오장의 神이 應한 이치이다”고 하였다. 장경악이 본 꿈은 이전의 책에서는 다루지 않은 유학적인 五常이나 의학 이외의 문헌을 인용하여 꿈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 것이다. 특히 꿈을 心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본 것은 역시 특이한 것이다.

10. 《醫林改錯》<sup>18)</sup>에 나타난 꿈

서양의학의 도입으로 기억과 영혼 및 성품 등은 心에 있는 것이 아니라 腦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어혈에 의한 꿈을 설명하고 있다. 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夜睡夢多 是血瘀”라하여 밤에 잠을 자는 경우에 꿈을 많이 꾸는 것은 ‘瘀血’이라고 하였다.

11. 《血證論》<sup>19)</sup>에 나타난 꿈

唐容川은 꿈이 기전에 대하여, “夢乃魂魄役物恍有所見之故也 魂爲陽 則夢女子花草神仙歡喜之事 山棗仁湯治之 魄爲病 則夢驚怪鬼物爭鬪之事 人蔘清肺湯 加琥珀治之 夢中所見 卽是魂魄 魂善魄惡 故魂夢多善 魄夢多惡 然魂魄之所主者神也 故安神爲治夢要訣 益氣安神湯治之 又有癆蟲生夢 照癆蟲法治之 再按 睡而惡明喜暗者 火邪 側臥不得轉身者 少陽之樞機不利也. 꿈은 魂魄이 사물을 부려서, 황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魂이 병이 된 경우는 女子·花草·神仙이 나타나고, 즐거워하고 기쁘하는 일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山棗仁湯으로 치료하라 하였다. 魄이 병이 된 경우는 驚

怪·鬼物·투쟁하는 일이 꿈에 나타나는데 人蔘 淸肺湯에다가 琥珀을 가미하여 치료하라고 하였다. 꿈 중에 나타나는 것은 魂魄이다. 魂은 좋은 일이고, 魄은 나쁜 일이다. 魂夢은 좋은 일이 많고, 魄夢은 나쁜일이 많다. 그러나 魂魄을 조절하는 것은 神이다. 고로 安神하는 것이 꿈을 치료하는 요결이며, 익기안신탕으로 치료한다. 또한 癆蟲은 꿈을 꾸게하고 癆蟲은 빛을 비추는 것이 치료법이 된다. 재차 생각하면 밝음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꿈은 火邪이고 누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少陽의 樞機가 不利한 것이다"라 하였다. 여기서는 꿈을 魂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문헌에도 이미 꿈의 기전으로 설명하였지만, 魂夢과 魄夢으로 설명한 것은 처음이며, 꿈의 내용이 좋고 나쁨으로 전체적으로 구분하였다. 魂魄을 조절하는 것이 神으로, 꿈에 대한 치료법으로 安神시키는 藥物을 투여하고, 꿈에 나타나는 夢象에 의하여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한약이 五臟의 情志를 균형있게하여 꿈을 치료하는 것이다.

12. 《張氏醫通》<sup>20)</sup>에 나타난 꿈

《張氏醫通 卷6 神志門》에 驚을 설명하면서, “驚則氣亂 鬱而生火生涎 涎與氣搏 變生諸證 或短氣 或自汗 或眠多異夢 隨卽驚覺 并宜溫膽湯加熟棗仁 如遠志丸 妙香散”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異夢이라는 말이 나오고 역시 한약을 투여하고 있다.

13. 《讀醫隨筆》<sup>21)</sup>에 나타난 꿈

《讀醫隨筆》에서는 “大抵虫症與痰症相類 痰多怪症 虫亦多怪症也 爲暈眩昏厥 爲癲癩狂妄 爲吐利血水 爲皮膚頑麻 奇痛奇痒 爲四肢拘急 痿緩振掉 爲怪夢紛紜”이라 하여 痰이나 虫이 怪夢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14. 《東醫寶鑑》<sup>22)</sup>에 나타난 꿈

《東醫寶鑑 內景篇 卷之二·夢》에서는 제일 먼저 “魂魄爲夢”이라 하여 꿈의 기전과 다음은 《靈樞·淫邪發夢篇》과 儒門事親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素問·方盛衰論》을 인용하고 제목을 五臟虛實爲夢이라 하였다. 이는

오장의 편차에 의하여 꿈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眞人같은 사람은 五臟의 균형이 이상적이어서 꿈을 꾸지 않는다. 세부 목차로 둔 것은 內經 이후 의서 중 최초로 언급하고 있으며, 꿈과 수면의 기전 및 질병을 포함하여 약물과 예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 III. 考 察

인간은 수면중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은,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상태이지만 이는 장부의 실조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臟腑에 병이 있으면 魂魄이 飛揚하여 수면이 불안하고 어떤 환자의 경우는 꿈이 많아지고 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심하면 수면까지 방해를 한다<sup>23)</sup>.

현대 임상적인 연구에 의하면, 꿈속에 거대한 소리나 이상한 소리를 들어면 中樞 혹은 부근의 혈관기형의 징조를 나타내고, 이상한 빛이나 색채가 보이면 뇌혈관기형이나 視覺中樞神經에 혈액공급이 안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꿈속에 놀라거나 높은곳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심장에 병이 있는 징조이고, 타인을 때리거나 말다툼하는 것은 熱性病의 象徵이고, 날아오르거나 바람에 펄럭이고 높은곳에 오르는 경우는 眩暈이나 頭痛이 있고, 膽病환자는 야간에 惡夢으로 놀라서 깨어나는 경우로 膽病이 발작하는 것을 예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疏肝利膽하고 定魂 安魄 寧神하는 약제를 사용하여 膽病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sup>24)</sup>.

꿈의 상항을 질병진단에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驚恐한 꿈을 꾸는 경우 심장이 늘래고 魄을 動하게하여, 꿈을 깬후에 심장이 계속 뛰고 이러한 종류의 꿈은 心膽氣虛·心腎不交·久病體虛·精滑·神經衰弱 환자로 심방실이 震顫하고 빨리 뛰는 환자이다. 분노의 꿈을 꾸는데 마음이 焦躁하고 憤憤不平, 怒가 심하면 막지를 못하고 타인과 자주 싸운다. 이러한 종류의 꿈은 肝膽氣實·鬱結不舒하여 예를 들면 風火牙痛·肝陽上亢型高血壓·간경화·담결석 등의 환자이다. 喜樂한 꿈

을 꾸어 歡快喜悅한 경우는 기혈이 和暢하고 陰平陽密하며 혹 질병이 있더라도 예후가 양호하다. 悲憂한 꿈은 傷心淒楚 悶悶不樂하는데, 이러한 꿈은 心肺氣虛·肝陰不足하여 예를 들면 폐결핵·만성간질환·노년성울증·히스테리환자의 경우에 많다. 생각을 많이 해서 종종 곤란하게 되거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肝脾不調하여 예를 들면 소화불량·위궤양·위하수 등의 환자에 많다. 꿈속에 싸우고 마음이 오만하고 타인을 굴복하고자하면 肝膽氣逆·肝陽上亢하여 예를 들면 고혈압·食滯·虫積 등의 환자에게 많다”고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sup>25)</sup>.

꿈과 七情과 五臟의 상관성에 있어, 꿈은 꿈의 환경형성과 臟腑의 陰陽偏勝과 臟器의 盛衰, 魂魄이 편안하게 머무를수 있는나가 중요한데, 五臟中 肝心脾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肝臟魂 心臟神 肺臟魄 膽主決斷하는데, 膽이 決斷을 잘하지 못하면 魂魄이 안정이 안되어서 꿈을 꾸게되는 것이다<sup>26)</sup>.

《靈樞·淫邪發夢篇》에서는 꿈과 五臟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五臟中 心肝膽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러한 臟器가 안정이 되어야 만이 神이 守舍하고 魂魄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心腎의 관계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는 心腎不交(水火未濟)의 관점에서 多夢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脾臟의 경우는 낮에 생각을 많이하면, 야간에 꿈을 꾸게되는 것이다. 《素問·方盛衰論》에서는 五臟氣虛·陽氣有餘·陰氣不足을 중심으로 魂魄의 관점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감정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감정을 五臟六腑에 배속하여 陰陽五行에 귀속을 시키고 있다. 꿈도 《內經》에 나타난 문구를 통하여 살펴보면, 《東醫寶鑑》에 있는 五臟虛實爲夢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우리는 꿈의 내용을 통하여, 臟器에 배속된 감정의 편차를 조절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진단 및 치료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꿈과 脈의 관계에서는 둘다 진단적인 면에서 무형적인 면이 많다. 한의학에서는 夢象과 脈象과의 관계를 분명히 긍정하였다는 점이다. 《素

問·脈要精微論》에서는 五臟 중에서 유독 肝肺의 관점에서 꿈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아마 魂魄의 관점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고, 일찍이 사람의 脈象에 근거하여 肝氣·肺氣, 陰盛·陽盛·陰陽盛, 短蟲·長蟲등이 기록되어있다. 《靈樞·淫邪發夢篇》과 《素問·脈要精微論》의 차이는 《靈樞·淫邪發夢篇》은 臟象으로부터 夢象을 직접 설명을 하였고,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먼저 脈象으로부터 臟象을 설명하고, 다시 臟象으로부터 夢象을 설명하였다<sup>5)</sup>.

脈象으로부터 바로 臟象을 얻는 방법은 《列子·周穆王篇》<sup>3)</sup>에서 “是以以浮虛爲疾者 則夢揚以沈實爲疾者 則夢溺”이라하여 脈象으로 바로 夢象을 바로 찾아내었다.

심리활동은 물질적인 기초하에서 장부기능활동은 심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靈樞·本神篇》이나 《素門·舉痛論》 등에서 언급한 것은 모두 形·神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꿈은 심리와 생리평형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內經》에서는 꿈을 심리적인 失衡의 반영이라고 하였다<sup>27)</sup>.

꿈과 정신치료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음양적인 분석이 가능한가? 또는 陰陽·五行적으로 夢象을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문제는 陰陽·五行이 일률적으로 원래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가 느끼는 陰陽·五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夢象에 대하여 陰陽·五行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환자의 정신적인 구조는 그때의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수시로 변화게 되는 것이다. 陰陽이나 五行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도 환자의 꿈에 내용에 대하여 주관적인 관념이나 사고를 가져서는 안되며,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無爲나 道의 입장에서 환자중심으로 시술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꿈을 분석하고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얼마나 陰陽이나 감정 및 五臟의 편차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수가 있는나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환자가 夢象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의사가 虛心合道<sup>22)</sup>의 입장에서 환자 스스로가 깨달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IV. 結 論

1. 정신은 五臟을 바탕으로 발현이 되는데, 五臟 속에 배속된 情志와 유관된 것이 夢象으로 나타난다.

2. 꿈 역시 陰陽의 失調로 인하여 나타나는 夢象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꿈을 통하여 陰陽의 편차를 알아 내는 방법으로 치료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3. 《素問·方盛衰論》에서는 五臟氣虛, 《靈樞·淫邪發夢篇》은 五臟氣盛, 上下의 盛, 陰氣와 陽氣의 盛,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肝氣나 肺氣가 盛한 것을 본 것인데, 여기서 나타난 꿈을 통해서 진단 및 치료의 補瀉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4. 꿈에 나타난 夢象의 해석은 陰陽 및 五行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의사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깨달도록 의사는 虛心合道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5. 《素問·方盛衰論》《靈樞·淫邪發夢篇》《素問·脈要精微論》에 대한 재가들의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듯이 꿈에 대한 해석도 각각 다르다. 치료자가 어느정도 한의학적인 陰陽이나 五行을 어느나에 따라 진단 및 치료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6. 꿈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이고, 한의학은 감정(七情)을 중시하는 의학으로 五臟에 배속된 감정을 꿈을 통하여 잘 다룸으로서 치료를 증대시킬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이정균.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96: 648.
2. 김달진역. 장자, 서울: 문학동네, 1999: 27, 38.
3. 李元燮譯註. 新譯 列子 管子. 서울: 현암사, 1981: 126-129.
4. 張載撰, 王夫之注. 張子正蒙.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128.
5. 하영삼·김창경역. 꿈의 철학. 서울: 동문선. 1993: 257-258, 304.
6. 天台智者大師. 大止觀坐禪法(4권). 서울: 운주사. 1995: 247.
7. 배병철역. 금석황제내경. 소문. 서울: 성보사. 1992: 192, 884.
8. 陳夢雷. 醫部全錄(一), (二). 서울: 성보사. 1982: 167, 871, 1191-1193.
9. 배병철역. 금석황제내경. 영추. 서울: 성보사. 1992: 341-343.
10. 王叔和. 王叔和脈經. 台北: 문광도서유한공사인행. 1969: 94-118.
11. 孫思邈著, 李景榮等.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8: 249-448.
12. 巢元方等著. 諸病源侯論.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2: 24.
13.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台北: 宏業書局有限公司, 1976: 167-168.
14. 張子和. 子和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94.
15. 이 천. 국역편주의학입문. 서울: 남산당. 1982: 422, 460-461.
16. 한남수. 석당한의학. 전남: 국제문화사: 1985: 477.
17. 장개빈. 유경(하). 서울: 대성문화사, 1982: 404-405.
18. 왕청임. 의림개작. 북경: 중국중의약출판사: 1995: 26.
19. 唐容川. 血證論. 臺北: 方行書局有限公司 1984: 148-149.
20. 張璠.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309.

21. 周學海. 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36.
22. 허 준: 동의보감. 北京: 중국중의약출판사, 1998: 6-7, 60.
23. 曹培琳編著. 陰陽五行運氣八卦及其在中醫學中的應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348-349.
24. 柴文學, 蔡濱新 編著. 中醫釋夢辨治. 北京: 學苑出版社. 1996: 67-68.
25. 張伯華編著. 中醫心理學. 山東: 科學出版社, 1995: 125-126
26.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50.
27.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0: 189, 190.